

RSA 알고리즘이 ECC 알고리즘에 비해 어떤 요소로 인해 성능 차이가 날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또는 동기

현재 암호화 체계 RSA 암호화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RSA 알고리즘보다 ECC 알고리즘이 더 장점이 많다. 우리는 어떤 요소로 인하여 성능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져, 이를 분석하기로 했다.

2. 연구 문제

각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RSA 암호화는 현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방향 데이터 암호화 기법이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다.

*양방향 암호화: 암호화된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는, 즉 사람이 알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 암호학적으로 연관된 두 개의 키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용자와 키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암호를 통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밀키 = 비공개키 = 개인키

*RSA 알고리즘이 암호화되는 간략한 과정

1. 임의의 두 소수 p, q 를 생성하고 그 둘을 곱해 n 을 구한다. ($n = p * q$)

2. e (공개키) 구하기: $\phi(n) = (p - 1) * (q - 1)$ 식을 이용하여 $\phi(n)$ 을 구한 후,

e 는 $1 < e < \phi(n)$ 로써 1 과 $\phi(n)$ 사이에 있고 $\phi(n)$ 와 서로소인 e 를 구한다.

3. d (개인키) 구하기: $(e * d) \bmod \phi(n) = 1$ 즉, $e*d$ 를 $\phi(n)$ 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인 d 를 구한다.

4. 암호화할 평문을 숫자로 변환한 것을 M 이라고 하고 암호화된 암호문을 C 라고 할 때

$C = (M^e) \bmod (n)$ 을 이용해 암호화한다.

* $\phi(n)$ (오일러 피 함수): 1 부터 n 까지의 정수 가운데 n 과 서로소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 $a \bmod b$ (모듈러 연산) : a 를 b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나타낸다.

2. ECC 암호화란 타원곡선 이론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타원곡선 위의 임의의 점

P 에 정수 k 를 곱하는 점 스칼라 곱셈 $Q=kP$ 로 정의된다.

이때 타원곡선 위의 점들, 즉 좌표값들의 계산이므로 비밀키 데이터는 모두 숫자여야 한다.

타원곡선 위의 점 P 와 점 Q 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교점 R 을 x 축으로 대칭시킨

점을 $P+Q=R$ 로 정의한다.

사용되는 타원곡선은 대부분 미리 정의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secp256k1` curve 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ECC 알고리즘이 암호화되는 간략한 과정

-G: 생성자, 타원곡선 위의 임의의 점

-x: 개인키, P 보다 작은 소수로, 난수 생성기로 생성

-Q: 공개키, 개인키로부터 연산

점 $P(x,y)$ 가 타원곡선 위에 위치할 때 두 점 P, Q 는 임의의 정수 x 에 대하여 $Q=xG$ 라는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때, Q 와 G 값만을 가지고 x 값을 알아내기 힘든 속성을 이용해 x 를 개인키로 Q 를 공개키로 활용한다.

III. 연구 방법

1. 각 알고리즘의 암호화 과정을 분석하고 세분화한다. 1)
2. 암호화 코드를 세분화한 것에 따라 시간을 재는 코드를 삽입한다.
3. 각 코드를 10 만 번 반복 실행시켜 걸린 시간의 평균값을 얻는다. 2)
4. 위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어떤 요소가 암호화의 성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한다.

1) 이 실험에서는 키 생성을 위한 소수 준비, 공개키와 비밀키 생성, 암호화 총 3 개 과정으로 구분했다.

2) 반복 실행 횟수를 10 만 번으로 정한 근거는 횟수를 5 만번부터 10 만 번 까지 점차 올렸을때 결과값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 만 번 이상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V. 본론

1. RSA 데이터 분석

RSA 알고리즘은 키 생성을 위한 소수 준비 과정에서 0.000196 초를, 공개, 비밀키 생성 과정에서 0.220435 초, 암호화 과정에서 0.000012 초로 총 0.220644 초가 소요되었다.

소수 준비 과정 0.09%, 공개, 비밀키 생성 과정 99.91%, 암호화 과정 0.01%

2. ECC 데이터 분석

ECC 알고리즘은 생성을 위한 소수 준비과정이 필요 없었고, 공개키 비밀키 생성 과정에서 0.00198 초, 암호화 과정에서 0.00001 초로 총 0.00199 초가 소요되었다.

소수 준비 과정 0.00%, 공개, 비밀키 생성 과정 99.5%, 암호화 과정 0.5%

V. 결론

두 알고리즘 모두 총 암호화 시간 중에서 공개, 비밀키 생성 과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 비하면 나머지 소수 준비 과정과 암호화 과정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RSA 암호화의 경우 매우 큰 소수 두 개의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데 반해 ECC 알고리즘은 미리 정의된 타원곡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와 비밀키 크기가 작고 이는 암호화 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ECC, RSA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는 암호화 방식에 따른 키의 크기의 차이 때문이다.

VI.참고문헌

-ECC-

dev_mac_-, "기초암호학(4) - ECC(타원곡선 암호화 알고리즘), 티스토리, 2019.04.13,
<https://developer-mac.tistory.com/83>

최준백 · 신경욱, 2021, 타원곡선 기반 공개키 암호 시스템 구현을 위한 scalable ECC
프로세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김현수 · 박석천, 2011, 음성 데이터 보안을 위한 효율적인 ECC 암호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2023,
http://www.ktword.co.kr/test/view/view.php?m_temp1=752

-RSA-

x